

## 권력의 식민성과 탈식민성: 유럽중심주의와 제3세계주의를 넘어서\*

김은중  
단독/서울대학교

Kim, Eun-Joong (2011), Rethinking the Coloniality of Power and Decoloniality in Latin America: Beyond Eurocentrism and Thirdworldism.

**Abstract** Se considera que en los países del Sur, donde todavía la modernidad es un proceso incompleto, los movimientos sociales tienen poca potencialidad para subvertirla. Hasta se afirma que las metas de los movimientos del Sur son el punto de partida de los movimientos del Norte. En esta tesis intentaremos cambiar los términos del debate sobre el escaso potencial de los cambios latinoamericanos para retar los límites de la modernidad. Ya para comienzos de los noventa se habla de la crisis del desarrollismo para recalcar el fracaso, no de la manera de medir el desarrollo, sino del modelo mismo. Reevaluando la idea del desarrollo como un campo de lucha y no como un requisito para articular movimientos, podemos desprendernos del prejuicio eurocéntrico según el cual las acciones colectivas del Sur tienen poco potencial para retar los límites de la modernidad. Lo que se llama epistemología del Sur es una comprensión del mundo mucho más amplia que la que nos da la comprensión occidental, pero no está todavía contabilizada en las soluciones políticas y teóricas que por ahora tenemos. Lo importante de esta perspectiva es que exige considerar un amplio rango de alternativas sacándonos de la lógica binaria del todo o nada. Muchas alternativas ya existen, pero no han sido reconocidas sino marginadas y excluidas. Concretamente, esta tesis explora dos ideas marginales en el estudio de los cambios político-sociales en América Latina, colonialidad del poder y decolonialidad.

**Key words** colonialidad del poder, de-colonialidad, movimientos sociales, post-liberalismo, pensamiento fronterizo  
권력의 식민성, 탈식민성, 사회운동, 포스트-자유주의, 경계사유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27-B00490).

전지구화 시대에 라틴아메리카의 특성, 위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실은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적 경험과 그 역사를 해석하는 지배적인 인식의 지평이 한 번도 일치한 적이 없었고, 그 때문에 끊임 없이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Anibal Quijano, *Coloniality of Power and Eurocentrism in Latin America*

유럽의 관점에서 아메리카를 지도에 배치하는 것은 진정한 지구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한 헌신적 작업과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 유럽인들의 지도 그리기는 비유럽인들의 공간 개념을 억압하고 유럽의 지도제작 능력을 확산시킴으로써 영토를 통제하기 위한 일과 관련되어 있었다.

—Walter Mignolo, *Putting the Americas on the map*

## I. 서론

오늘날 라틴아메리카는 매우 중대한 대항헤게모니(counter-hegemony) 과정이 국가적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그렇다면 대항헤게모니 과정이 도달할 목표 지점은 어디일까? 새로운 사회주의의 건설일까? 혹은 지난 30년 동안 대륙 전체를 휩쓸었던 신자유주의 정책이 붕괴되고 남미 블록이 형성되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방식의 민주주의와 발전을 만들어내기 위한 ‘새로운 시작’(un nuevo comienzo)일까? 21세기 사회주의, 다국민성(plurinacionalidad), 상호문화성(interculturality),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민주주의, 시민혁명(revolución ciudadana), ‘새로운 삶의 방식’(buen vivir)에 중점을 둔 내생적 발전(endogenous development), 영토적-문화적 자율과 자치, ‘자유주의 이후’(post-liberal)의 사회를 지향하는 탈식민적(decolonial) 기획 등이 이러한 목표 지점을 의미하는 개념들로 등장하고 있다.<sup>1)</sup> 다양한 개념들은 대항헤게모니 과정을 통해 도달하기 위한 목적지가 동일하지 않고

1) 최근에 유럽과 미국에서 등장한 반체제적 구호인 ‘분노하라’, ‘점거하라’와 라틴 아메리카 대항헤게모니 구호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다양하며 갈등의 요소를 내포하는 차이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뭉뚱그려 ‘좌파로의 전환’(turn to the Left)이라고 지칭되는 대항해게모니 과정이 대륙 전체에서 진행 중이다(Panizza 2005; Arditì 2008; Escobar 2010).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가 이런 움직임이 가장 활발한 나라이며,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니카라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는 앞의 경우보다 강도가 약한 편이고, 브라질, 칠레, 우루과이는 실용적 개혁 정도로 부를 수 있다. 그렇다면 어쩌서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예견을 비웃기라도 하는 것처럼, 새로운 천 년의 처음 10년 동안 라틴아메리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무엇보다도 라틴아메리카가 다른 지역보다 지난 3~40년 동안 신자유주의 개혁이 가장 먼저, 가장 철저히 적용되었으며, 가장 먼저 해체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사회적 계층을 가리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발전을 위한 유일하고 필연적인 모델이라는 믿음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폭넓게 진행되고 있는 대항해게모니 과정이 포스트-신자유주의적 사회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에 진입했느냐 아니냐는 판단은 접어두더라도 반-신자유주의를 표명하는 것은 확실하다.<sup>2)</sup>

이런 맥락에서, 라틴아메리카의 변화에 대한 최근의 많은 연구들은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적 변화를 워싱턴 컨센서스 강령으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하는 포스트-신자유주의로 규정하고, 분석의 초점을 국가적 차원의 변화에 맞추고 있다.<sup>3)</sup> ‘(중도)좌파로의 전환’이라는 일반화된 지칭은 이러한 시각과

- 2)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 지도자들—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아르헨티나의 네스토르 키르츠네르,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 등—은 워싱턴 컨센서스의 처방과 불화하는 경제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이후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운동은 선거와 사회적 동원을 통해 경제적 자원의 국유화와 자유주의 정책을 뛰어넘는 새로운 정치 형태를 요구하고 있다. 민중 분야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중산 계층에서 변화에 대한 절규와 요구가 터져 나온 것은 신자유주의 개혁이 초래한 심각한 경제적·사회적 배제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적·사회적 배제는 두 가지 요소의 등장을 가속화시켰다. 기존의 조직을 대체하는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연합 세력의 등장이 한 가지 요소라면, 다른 한 가지 요소는 서로 다른 계급 간의, 전통적 사회운동과 새로운 사회운동 간의 수평적 결합이다.
- 3) 최근에 출간된 책 중 다음을 참고하라. John Burdick, Philip Oxhorn and Kenneth M. Roberts(eds.)(2009), *Beyond Neoliberalism in Latin America? Societies and Politics*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앞에서 언급한 개념들의 폭넓은 이념적 스펙트럼을 포괄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새롭게 등장한 (중도)좌파 정권들의 개혁은 국제정치경제적 역학 관계에서 한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긴장과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이성형 2011). 이 때문에 멕시코 남부에서부터 남미 파타고니아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요구하는 열망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대항헤게모니 과정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 자체가 투쟁이고 논쟁거리이다. 즉 지금의 과정을 ‘누구의 관점에서 보는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어떤 목적을 가지는가?’ 라는 질문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항헤게모니 과정에 대한 분석은 이론적이고 동시에 정치적이다(Escobar 2010). 또한 이중적 과정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긴장과 모순을 내포한 다양한 개념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은 현재 진행되는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기획들의 기저를 형성하는 장기지속의 역사들과 그 궤적들이 중층적이고 복합적으로 누적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다시 말해, 대항헤게모니 과정은 최근 3~40년 동안의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에 대한 포스트-신자유주의적(post-neoliberal) 노선을 표방하는 선에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단일하고 보편적인 유럽중심주의적 근대성을 넘어서는 포스트-자유주의(post-liberal)로 확장되고 있다. 대항헤게모니 과정을 통해 제시되는 개념의 다양성은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질문과 관련이 있으며, 도달하려는 목표 지점은 포스트-신자유주의와 포스트-자유주의로 대별된다. 즉 중도좌파 정권들의 목표 지점이 포스트-신자유주의라면, 90년대 중반 이후 정

---

at the Crossroad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Jean Grugel and Pia Riggirozzi (eds.)(2009), *Governance after Neoliberalism in Latin America*, New York, Palgrave Macmillan; Fernando Ignacio Levia(2008), *Latin American Neoliberalism: The Contradictions of Post-Neoliberal Development*,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Laura Macdonald and Arne Ruckert(eds.)(2009), *Post-Neoliberalism in the Americas*, Basingstoke, U.K., Palgrave Macmillan; Francisco Panizza(2009), *Contemporary Latin America: Development and Democracy beyond the Washington Consensus*, London, Zed Books; Eduardo Silva(2009), *Challenging Neoliberalism in Latin America*,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치 지형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었던 사회운동들의 목표 지점은 포스트-자유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이름의 축적체제의 변화는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의 차이를 중도라는 형식으로 희석시키거나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축적체제의 유연성과 시뮬라크르 현상으로 대변되는 자본의 새로운 증식방식은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lo político), 사회적인 것(lo social) 전반의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질서 재편은 자본주의의 승리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위기이며, 칼 폴라니의 말을 빌리면, 자기조정적(self-regulatory) 시장경제의 위기를 의미한다. 폴라니의 진단에 따르면, 19세기 사회사는 시장적인 조직 방식의 확장의 과정과 시장적 조직 방식을 제한하는 이중적 운동(doble movement)의 결과였다. 그리고 20세기 전반에 자기조정적 시장경제의 위기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대안은 파시즘, 사회주의, 뉴딜 정책이었다(칼 폴라니 2009; 백승욱 2006). 그러나 세 가지 대안은 모두 실효성을 상실하고 무력화되었다.<sup>4)</sup> 스티글리츠가 지적하듯이, 파시즘과 공산주의는 단지 대안적 경제 체제였던 것이 아니라 시장 사회가 작동하기를 거부했던 것에 그 뿌리가 있다(칼 폴라니 2009, 27). 또한 뉴딜 정책은 성장/발전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만 시장적 조직 방식을 제한할 수 있다는 한계를 노출했다(Wallerstein 2011). 그렇다면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의 자본주의의 위기가 구체화되는 상황에서 포스트-신자유주의와 포스트-자유주의가 합류하는 대안의 지점은 무엇일까? 『제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제국의

4) 엄밀히 말하면 파시즘은 자기조정적 시장경제의 위기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대안이 아니라 자유주의 철학에서 나오는 피할 수 없는 결과이다. “자유주의 철학은 권력과 강제란 사악한 것이며, 또 인간 공동체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런 일은 가능하지도 않으며, 특히 복합사회에서는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은 두 가지뿐이다. 환상에 불과한 자유의 이상에 충실하여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사회라는 실재를 부정하든가, 아니면 사회 실재의 현실을 받아들여 자유라는 이상을 부정하든가. 전자가 자유주의자들의 결론이라면, 후자는 파시스트들의 결론이다. 다른 길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칼 폴라니 2009, 599).

외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라틴아메리카의 대항해계모니 과정을 어디에 위치시켜야 할까?

지금 부딪히고 있는 난제는 자본주의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사유의 위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시장 사회의 작동을 정지시키거나 전체주의적 경제 체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에 대한 대안적 사유’(pensamiento alternativo de alternativas)이다 (Santos 2006; 2010, 58). 즉 대안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것이다. 대안에 대한 대안적 사유로 풀라니는 두 가지를 강조한다. 첫째, 시장을 더 넓은 의미에서의 경제의 일부로 보고, 또 더 넓은 의미에서의 경제를 다시 훨씬 더 넓은 사회의 일부로 보는 것이다. 둘째, 첫 번째 작업을 통해 지구 공동체라는 복합사회에서의 자유의 문제를 새롭게 숙고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사항을 통해 칼 풀라니가 강조하는 것은 ‘사회’라는 실체이며, 국가도 시장도 이 사회라는 실체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1세기 신자유주의 경제가 위기에 직면하면서 칼 풀라니가 새롭게 조명 받는 것은 이 때문이며, 이는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과 더불어 사라졌던 사회구성체론에 대한 새로운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회구성체론의 관점에서 사회라는 실체는 하나의 질서와 그러한 질서로 소급될 수 없는 이질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역동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형태로 구성되어 간다. 사회를 하나의 정형화된 형태와 질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우세한 시기에도 사회구성체론에서 가장 중심에 놓여 있고, 또 가장 논쟁적인 문제는 사회 안에 공존하는 이질적인 요소들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이진경 *et al.* 2008).

오늘날 라틴아메리카의 대항해계모니 과정은 포스트-신자유주의와 포스트-자유주의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진행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는 근대적/식민적 자본주의 세계체제를 출현을 가능하게 했던 근원적 공간이었고, 이 때문에 근대적/식민적 자본주의 세계체제를 통해 등장한 식민적 권력 매트릭스(colonial matrix of power)에 대한 저항의 중심지이자 대안의 생산지가

되고 있다. 즉 지난 30년간의 신자유주의 모델의 위기와 아메리카 발견/정복 이후 지난 500년간의 근대성 기획의 위기가 겹쳐지면서, 라틴아메리카는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으로부터 시작해 후기구조주의를 거쳐 탈식민적 사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궤적을 그리는 비판이론들, 다층적인 역사와 미래에 대한 비전들, 매우 이질적이고 다양한 문화적·정치적 기획들이 수렴되는 지역구성체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은 80년대에 등장했던 이행론과는 다른 투쟁과 선택(struggle and option)의 교차로이다. 본 논문에서는 권력의 식민성과 탈식민성이라는 상호연관된 두 가지 개념을 축으로 라틴아메리카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항해게모니 과정을 분석하려고 한다.<sup>5)</sup>

## II. 라틴아메리카의 현재—라틴아메리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 1. 1980년대 발전주의의 위기와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

발전주의의 관점에서 라틴아메리카가 외채 위기의 수렁에 빠져들었던 1980년대는 ‘잃어버린 10년’ (la década perdida)으로 불린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은 이미 ‘발전주의 환상’의 마지막 고조기였다. 로마클럽은 첫 번째 보고서(1972) “성장의 한계”에서 전 세계적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장을 향한 끊임없는 경주가 가져올 위태로운 결과에 대해서 경고를 보냈다. 이 보고서는 회복할 수 없는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제3세계 국가들은 인구증가를 조절해야 하고, 제1세계 국가들은 물질적 소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성장을 제

5) ‘권력의 식민성’은 아니발 끼하노가 식민주의와 구별하기 위해 처음으로 사용한 개념이다. 미놀로가 『라틴아메리카, 만들어진 대륙: 식민적 상처와 탈식민적 전환』의 한국어판 서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권력의 식민성은 푸코의 훈육권력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끼하노는 훈육권력이 감옥이나 병원, 학교 등 폐쇄된 공간을 넘어서서 일상적 삶의 구석구석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실과 라틴아메리카에는 이러한 현실이 지난 5세기 동안 지속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해 ‘식민적 권력 매트릭스’(colonial matrix of power)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본 논문에서는 끼하노가 사용한 개념의 이론적 개보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논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 분석틀로 제시되었다.

한할 것을 제안했다. “기रो에 선 인류”라는 제목의 두 번째 보고서(1974)에서는 위기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차별적이고 불균형한 성장 모델을 유기적이고 조화로운 성장 모델로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경고와 제안에도 불구하고, 발전 개념은 폐기되지 않았고 단지 자기조정적 수정만이 모색되었다. 국내총생산(Product Interno Bruto)은 1940~60년대까지 인간발전지수와 인간빈곤지수를 동시에 측정하는 양적 기준이 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와 발전 개념은 양적 기준에서 질적 기준으로 변신했는데 이때 사용된 슬로건이 ‘기본적 필요의 충족’ 혹은 ‘삶의 질’이었다. 양적 기준에서 질적 기준으로의 변신은 발전 개념이 경제적 영역을 뛰어넘어 인간의 얼굴을 한 발전 개념처럼 보이기 위한 전략이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이라는 구호도 ‘인간적 발전’(Desarrollo Humano), ‘지속가능한 발전’(Desarrollo Sostenible)으로 순차적으로 모습을 바꾸었고 최근에는 ‘총체적·참여적 발전’(Desarrollo Integral y Participativo) 혹은 ‘공생 발전’(Co-desarrollo)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sup>6)</sup>

아르투로 에스꼬바르(Arturo Escobar)와 소니아 알바레스(Sonia Alvarez)는 공저로 출간한 책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의 등장: 정체성, 전략 그리고 민주주의 *The Making of Social Movements in Latin America: Identity, Strategy and Democracy*』(1992)에서 세간의 통념을 뒤집고 80년대를 ‘수확의 10년’(la década ganada)으로 규정했다.<sup>7)</sup>

그들은 무단점유자들로부터 생태주의자들까지, 가난한 주민들의 생계를 위한 투쟁으로부터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페미니스트운동까지, 인권과 생명권의 방어를 위한 집회에서부터 동성애자들의 연합까지, 광범위한 계층을

6) 심지어는 제국주의의 침탈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식민지 국가들도 내부로부터 성장하여 근대화를 이룰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재적 발전론’조차도 서구중심주의적 발전과 근대성을 모든 나라, 모든 역사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어떤 불변의 본질로 간주한다.

7) ‘잃어버린 10년’과 ‘수확의 10년’이라는 대구(對句)는 ‘패배한 10년’과 ‘승리한 10년’이라는 대구로 표현될 수도 있다. 그러나 뒤의 표현은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라는 이분법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포괄하는 라틴아메리카의 집단행동을 80년대에 거둔 수확으로 본 것이다. 그들은 사회운동이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 두 가지를 지적했는데, 한 가지는 전통적인 정치적 대의 메커니즘의 위기였고, 다른 한 가지는 발전주의의 위기였다. 특히 발전주의의 위기를 80년대에 라틴아메리카에서 사회운동이 급증하게 된 역사적 맥락으로 본 것은 그때까지 우세했던 발전주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역전시키는 인식의 전환이었다.

68세계혁명 이후 등장한 신사회운동(New Social Movements)은 국가와 사회주의혁명에 중점을 두는 사회과학방법론에 밀려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가 80년대에 와서야 재평가되기 시작했다. 사회운동이 정당, 기업, 사회복지기구의 입장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사회적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주체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사회운동에 고무되어 유럽과 미국에서 등장한 비판이론들도 계몽주의적 합리성의 한계—경제 체제의 위기, 치명적인 환경파괴, 계급간 격차의 증가 등—를 새롭게 숙고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론적 노선들—자원동원이론, 정치적 이행이론, 정체성이론 등—이 유럽중심주의적 근대화나 발전주의를 근본적으로 비판한 것은 아니었다. 근대성의 위기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은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일 뿐이고, 이러한 잘못된 결과는 근대성에 내재된 성찰성(reflexivity)에 의해 교정될 수 있다고 믿었다(기든스 1991). 또한 근대성의 위기는 거쳐 가야 할 이행의 단계로 생각되었다. 이러한 믿음은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에 대한 평가에 그대로 연결된다. 비판이론가들은 근대성이 성숙 단계에 이르지 못한 제3세계의 사회운동은 근대성을 전복시킬 잠재력을 갖지 못하며, 제3세계의 사회운동의 목표 지점은 제1세계 사회운동의 출발 지점(기본적 필요의 충족, 국가권력에 맞선 사회운동의 자율성, 허약한 민주주의의 공고화 등)과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근대성을 경험하지 못하고 근대성을 비판하거나 탈근대성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은 ‘사회-역사적 운동’(Touraine 1987), ‘민중운동’(Laclau and Mouffe 1985),<sup>8)</sup> ‘문화운동’(Touraine and Khosrokhavar 2000)으로 규정되거

나 혹은 간단히 ‘구사회운동’ (Mainwaring and Viola 1984)으로 치부되었다.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을 발전주의의 위기와 근대성 자체에 대한 비판과 저항이 아니라 발전주의와 근대성 내부의 단계론적 운동으로 보는 시각은 라틴아메리카 지식인들도 마찬가지였다. 예를 들어, 오도넬(Guillermo O' Donnell)의 민주주의 이행론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는 60~70년대 권위적 관료주의 국가에서 80년대 자유민주주의로 이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이행론에 내재된 중대한 문제점은 ‘이행이 언제 시작되며,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이다. 오도넬은 먼저 독재 정권의 특징을 세밀하게 규명하고 이러한 특징들이 소멸되는 시점을 이행의 시작으로, 대의민주주의가 출현하는 시점을 이행의 최종적 목적지로 규정했다. 그러나 오도넬은 민주주의로의 이행의 시기에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의 경제의 자유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 결과, 사회적 불평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자유민주주의는 정당성의 토대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하지 못했다. 오도넬의 연구가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적·사회적 분석에 큰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한계를 보인 원인은 1980년대 라틴아메리카의 비판이론이 엘리트에 의해 지배되는 정치적 과정과 역학 관계를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민주주의 이행론의 한계는 지배적인 유럽중심적 인식의 관점과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적 경험 사이에 뛰어넘을 수 없는 단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이미-항상 선형적으로 존재하는 유럽중심적 지식의 관점에서 볼 때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적 경험은 이러한 관점의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은 발전이 사회운동이 발생하는 필요조건이 아니라 사회운동의 비판의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발전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누구의 관점에서 보는가’,

8) 라클라우와 무페가 *Hegemony and Socialist Strategy: Towards a Radical Democratic Politics*(1985)에서 사용한 민중운동(Popular Movement)이라는 개념은 사회-역사적 운동이나 문화운동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 ‘어떤 목적을 가지는가’ 라는 질문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라틴아메리카의 80년대를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패배한 10년과 승리한 10년—은 한 가지 극명한 예이다.<sup>9)</sup>

관점을 바꾸면, 잃어버린 것은 발전을 위한 경쟁에서의 몇 년이라는 시간이 아니라 근대적 기획의 유효성이었다.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들이 교육이나 건강 등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와 도로, 교통, 상하수도 등의 공공서비스의 이용과 향상에 대한 요구를 했을 때 중심부 국가들의 사회운동이 갔던 길을 뒤쫓아 간 것이 아니라, 근대적 질서가 만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근대적 질서의 한계에 대한 항거였다. 이 때문에 80년대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은 유럽중심주의적 근대성이 짜놓은 틀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다.

## 2.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제국의 지도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은 최근 30년의 신자유주의 경제모델의 심각한 위기를 알리는 징표이다. 1970년대 쿠데타를 통해 칠레와 아르헨티나에 등장한 잔혹한 군사정권의 경우처럼, 쇼크 요법을 동반한 신자유주의는 시장 개혁을 전면으로 내걸고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밀어붙였다. 신자유주의라는 새로

9) 80년대 외채위기는 라틴아메리카의 후진성 때문이 아니라 제국적 세계성(imperial globality)에 기인한 것이다. 금본위제에 기반한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되고 달러 본위제로 넘어가면서 금융자본주의가 가속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재정적자와 무역수지적자에 직면한 미국은 달러 부족을 발권특권(seigniorage)을 통해 해결했다. 여기에 석유가격의 상승으로 석유달러의 유통이 대폭적으로 증가하면서 국제시장에는 달러 인플레이 현상이 발생했다. 냉전이라는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상황 때문에 노동에 대한 포섭 전략 또한 곤란한 상황이었다. 달러의 공급은 늘어나고 이윤율은 하락하는 상황에서 달러의 대출처로 등장한 것이 산업화와 근대화를 추진하던 제3세계 국가들이었다. 저리의 차관을 초국적 은행으로부터 빌려 쓰는 것은 제3세계 국가들에게 좋은 기회로 생각되었다. 저리의 차관으로 공업화 기반을 마련해 후진국에서 벗어나려는 기대가 가득 찼기 때문이다. 레이저노믹스는 이러한 위기를 돌파하려는 목적에서 통화주의 정책을 사용했는데, 이것의 핵심은 이자율 인상과 긴축정책이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인 폴 볼커의 ‘반혁명’으로 불리는 통화주의 정책으로 미국은 달러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금융소득의 안정성 확보라는 목표를 추구했지만 그 직격탄을 맞은 것은 낮은 이자로 거액의 차관을 빌렸던 제3세계 국가들과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이었다(백승욱 2008).

은 세계질서는 정점에 도달한 금융자본주의와 유연적 축적체계 그리고 자유 시장 이데올로기, 냉전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의 붕괴,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 등으로 상징되었다. 경제정책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은 축소되었고 거시 경제의 안정화라는 이름으로 시장의 역할은 훨씬 커졌다. 무역과 자본 이동의 자유화, 공기업의 민영화, 규제 철폐, 노동 개혁이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포함되었다. 한편에서는 수출 부문의 활성화, 외국인 직접 투자의 증가, 몇몇 부문에서의 경쟁력 향상, 인플레이션 감소 효과, 권력의 분권화와 다문화주의 같은 사회정책의 실시 등을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의 긍정적 효과로 내세운다. 다른 한편에서는 실업과 비공식 부문의 증가, 국내생산과 국제무역 간 연계 효과 감소, 경제 부문 간 심각한 구조적 불균등, 엄청난 생태계 파괴, 국내적·국제적 양극화 등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의 부작용을 강조한다. 모든 정책이 공과(功過)의 양면을 갖는 것처럼 신자유주의 경제정책도 양면성을 갖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의 입장에서 보는가’이다.<sup>10)</sup>

결론적으로, 라틴아메리카에서 30년 전보다 불평등 수준이 감소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 반대로, 많은 나라들의 불평등이 증가했다(Ocampo 2004; 레이가다스 2008; 다미안·볼트비닉 2008). 그렇다면 80년대부터 지금까지를 ‘잃어버린 30년’ 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 최근까지 라틴아메리카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성공 케이스로 평가되었던 칠레 경제 기적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 점이 더 명료해진다.

많은 칠레인들은 당시를 빈곤층과 중산층에 대항한 부유층의 전쟁으로 바라보았다. 바로 그것이 경제 ‘기적’의 진짜 내막이었다. 1988년, 경제가 안정되고 급격히 성장할 때는 전체 인구의 45퍼센트가 빈곤층으로 전락했다. 그러나 칠레의 상위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상류층은 수입이 83퍼센트나 늘어났다. 심지어 2007년 칠레는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국가 가운데 하나였다. 유엔이 불평등을 조사한 123개국 가운데 칠레는 116위를 기록했다. 8번째로 가장 불평등한 국가인 것이다.(나오미 클라인 2008, 115)<sup>11)</sup>

10) 여기서 ‘누구’는 사회적 양극화의 관점에서는 사회적 소수자(99%)를 지칭하지만 자연환경과 생태계 파괴라는 관점에서는 자연일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의 도입은 복지국가와 국가가 주도하는 개발에 대한 국제적 합의체제(1945~1960년대 후반)가 종말을 고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금융자본주의의 지표는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의 도입 이후에도 성장이 유지된 것처럼 선전했지만 세계적으로 부채 수준과 실업률이 상승했고 대다수 민중의 실질소득이 하락했다는 사실을 감추었다. 신자유주의의 부정적 영향은 중심부와 주변부를 가리지 않고 대다수 민중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변부 나라들은 “스스로의 ‘개발’에 집중함으로써 국제정치·경제면에서 미국(그리고 폭넓게 보자면 범유럽권)이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것을 기회로 활용하려 했다. 그 나라들은 국가기관의 권력과 낮은 생산비용에 힘입어 ‘이머징’(emerging) 국가가 됐다. 사용하는 용어나 정치적인 공약이 ‘좌파’ 적일수록 그들은 더더욱 ‘개발’에 매달렸다. (사회주의 중국이 좋은 예이다)”(Wallerstein 2011).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발전 이데올로기는 좌·우 진영의 차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블랙홀이었지만, 역설적으로 그 결과는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로 드러났다.<sup>12)</sup>

국가 간 불평등과 국가 내 사회적 양극화는 신자유주의 경제모델이 부딪힌 위기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며, 따라서 사회운동이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양극화/빈곤을 축소/해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라틴아

11) 나오미 클라인이 지적하는 것처럼 칠레 경제의 기적적인 성공의 증거로 제시되는 ‘꾸준한 성장’도 사실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즉 시카고 보이스가 쇼크이론을 실행한 지 10년이 지난 시점으로 이미 피노체트가 노선을 전환한 상태였다. 시카고학파의 독트린을 엄격히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1982년 부채가 급증하고 하이퍼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면서 칠레 경제가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칠레 경제가 회생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은 아옌데 정권 때 국영화했던 국영구리회사(Codelco)가 민영화되지 않고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칠레 수출액의 85퍼센트를 차지했다(113-114).

12) 월러스틴은 개발을 통해 사회적 양극화를 축소하려는 이머징 국가들의 시도를 “사회민주주의의 환상”이라고 지적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60년대 말까지 사회민주주의가 가능했던 것은 재분배가 가능할 만큼의 자원을 창출해냈기 때문이지만 현재의 세계체제는 그 당시와 중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첫째, 생산의 실질비용 수준이 상승했고, 둘째 토지, 물, 식량, 에너지 등 자원의 이용 가능성에 큰 부담이 생겼으며, 셋째 자본주의적 생산의 확장이 생태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Wallerstein 2011).

메리카 사회운동의 등장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를 넘어서서 플라니가 강조했던 ‘사회’라는 실체에 대한 인식이다. 다시 말해, 사회운동은 정형화된 형태와 질서로 수렴되지 않는 이질적인 부분의 등장이다. 사회라는 실체는 ‘사회적인 것’(lo social)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사회가 존재적이라면 사회적인 것은 존재론적이다.<sup>13)</sup> 즉 사회가 제도화된 형식을 가리킨다면 사회적인 것은 제도화된 형식에서 배제되었거나, 제도 내부에서 침묵당하고 억압당한 요소를 포괄한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운동의 시발점은 반신자유주의이지만 그것의 지향점은 포스트-신자유주의를 넘어서서 포스트-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다. 포스트-신자유주의와 포스트-자유주의가 갈라지는 지점은 사회적인 것과 시장경제의 ‘묻어들어 있음’(embeddedness)의 관계이다.<sup>14)</sup> 시장경제는 원래 사회적인 것에 묻어들어 있었다. 그러나 시장에서의 자유를 앞세워 사회적인 것으로부터 ‘뿔뿔히 나옴’(disembedded) 시장경제가 오히려 사회적인 것을 묻어 들게 하는 역전 현상이 자본주의라면, 이를 재역전시키는 것이 포스트-자유주의의 지향점이다. 이에 반해, 포스트-신자유주의는 시장경제의 틀 안에서 자기조정 기능을 회복하려는 시도, 즉 사회적인 것을 시장경제 안으로 묻어 들게 하는 경제(환원)주의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 이름이 인간적 발전이든, 지속가능한 발전이든, 공생 발전이든 간에, 그 중심에는 발전의 논리가 완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인 것’과 ‘사회’의 관계는 ‘현실’과 ‘(현실에 대한) 표상’(representation)의 관계이다. 사회적인 것이 현실이라면 사회는 표상이다. 사회적인 것이라는 현실은 사회라는 표상을 통해 드러난다. 현실을 표상하는 매개로 흔히 사용되는 것은 지도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지도가 지리(地理)의 표상이면서 동시에 역사의 표상이라는 사실이다. 지도는 물질의 일차성

13) ‘사회적인 것’은 ‘생활세계’(lebens-welt, life-world)라는 의미로도 이해될 수 있다 (윤평중 1990; 두셀 2011).

14) ‘묻어들어 있음’(embeddedness)과 ‘뿔뿔히 나옴’(disembeddedness)이라는 역어는 배태(胚胎)와 탈배태, 착근(着根)과 탈착근 등으로도 가능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칼 플라니의 대표적 저서 『거대한 전환』(2009)의 역자인 홍기빈의 번역을 따랐다.

에 대한 객관적 표상(지리)이면서 필수적으로 지정학적 관점(역사)이 개입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도는 표상이면서 권력이다(Mignolo 1992). 지난 5세기 동안 경제적·사회적 삶의 지배적인 구성 논리는 ‘유럽중심주의적 근대성’(이하 근대성)이었다. 즉 근대성은 ‘담론 지도’(discursive map)였고 현실에 대한 다면적 표상이었다. 역사적으로는, 15세기 말 아메리카의 발견/정복을 시작으로 유럽의 종교개혁, 계몽주의, 프랑스혁명을 거치고 산업혁명이 이르러 시공간적으로 구체화되었다. 사회학적으로는, 국민국가와 시장경제가 등장하면서 유럽이라는 시공간적 맥락에서 ‘뿔뿔히 나온’ 제국주의가 등장했다(기든스 1991). 문화적으로는, 사회적인 것이 사회라는 체계로 합리화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현상의 토대에는 보편주의와 개인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철학적으로는,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와 형이상학이 만개했고, 이를 바탕으로 진보와 발전사관이 주류로 등장했다. 요약하자면, 근대성은 15세기 말 아메리카 발견/정복을 시작으로 유럽에서 발생한 일련의 역사적 사건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합류하면서 18세기 말부터 전 세계로 확산된 유럽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이데올로기이다.<sup>15)</sup> 따라서 가치중립적인 의미로도 사용되는 세계화(globalization)는 15세기 말 유럽이라는 시공간적 맥락에서 탄생한 근대성이 특수한 지역성에서 ‘뿔뿔히 나와’ ‘전지구적으로 탈-장소화’(global de-localization)되는 현상이다(Quijano 2000; Escobar 2007; 김은중 2011). 이런 맥락에서, 근대성과 근대성의 정점으로서의 세계화는 ‘이중의 뿔뿔히 나옴’(doble disembeddedness)이다.<sup>16)</sup> 하나

15) 근대성은 네 개의 근대적 기획으로도 설명된다. 첫째, 해방의 기획인데 탈주술화를 통한 합리성과 개인주의가 토대가 된다. 둘째, 팽창의 기획으로 자본주의, 과학적 발견, 산업적 발전으로 나타난다. 셋째, 혁신의 기획으로 사회와 자연의 관계에 나타나는 지속적인 개선과 쇄신의 추구이다. 넷째, 민주화의 기획인데 이성과 도덕의 발전을 위한 교육과 예술의 확산을 의미한다(가르시아 칸클리니 2011).

16) 기든스의 설명에 따르면, 전통적 맥락으로부터 뿔뿔히 나온 사회적 관계를 국민국가(와 시장경제)에 의해 조정되는 탈전통적 공간에 다시 묻어 들게 한 것이 근대성이 라면, 국가적 맥락으로부터 뿔뿔히 나온 사회적 관계를 더 이상 특정한 행위자에 의해 조정되지 않는 초국가적 공간에 다시 묻어 들게 한 것이 세계화이다(1991).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기든스의 설명에는 비대칭적 권력 관계가 누락되어 있다.

가 물질적 차원의 시장경제라면, 또 다른 하나는 인식적 담론 지도로서의 근대성이다. 한편에서 시장 경제를 움직인다고 믿었던 ‘보이지 않는 손’은 다른 한편에서 ‘제국의 지도’(imperial map)를 그리고 있었다.

제국의 담론 지도는 현실을 바라보는 표준이자 상식으로 작용한다.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서양, 중심부, 제1세계, 동양, 주변부, 제3세계 등의 이면에는 세계를 바라보는 인식의 특권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들은 구체적인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개념들에 해당하는 차별적인 외부적 실재가 존재하는 것처럼 믿게 만든다. 이 때문에, 이 개념들은 지리, 역사, 개인적 특성에서 이원적(binary)이고 위계적(hierarchical)으로 사용된다(Pletsch 1981). 사이드가 『오리엔탈리즘』(1979)에서 보여주었듯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제3세계라는 개념은 단순히 특정한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후진/저발전의 동의어이다.<sup>17)</sup> 즉 서양과 동양, 중심부와 주변부, 제1세계와 제3세계라는 이항대립의 배경에는 선진-후진, 발전-저발전, 문명-야만이라는 위계적 질서가 ‘제2의 본성’(second nature)으로 탈바꿈한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은 최종적으로 ‘서구와 나머지 세계’(the West and its Others)라는 이항대립으로 구성된다. 결국, 서구는 척도의 위치에서 나머지 세계를 명명하고-분류하고-나눔으로써 차이를 동질화시킨다. 푸코가 지적했듯이, 계몽은 자유를 발견했지만 동시에 훈육(discipline)을 발명해냈다(푸코 2003).<sup>18)</sup> 더 중요한 사실은 계몽이 발견한 근대적 훈육권력은 폐쇄적 범위를

17) 이런 개념들이 지리적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고 은유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이다. 최근까지 동양의 상징처럼 언급되던 일본이 국제기구나 대중문화의 영역에서 서구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지칭하던 제3세계라는 용어가 미국의 유색인종이나 하위주체집단을 가리키는 용어로 바뀌고 있다. 미국의 로스 앤젤레스를 ‘제3세계의 수도’로 지칭하는 은유적 표현이 이를 잘 보여준다(Coronil 1996, 53).

18) 이것이 소위 ‘계몽의 역설’이다. 계몽의 역설은 중세에 자유의 상징이었던 도시에 도 적용된다. 공유지에 기초하거나 공동노동을 위한 농촌공동체와 달리 중세 도시는 평등주의와 상호부조가 결합된 기이함과 새로움의 원천이었다. 중세 도시는 자신의 독립성을 방어하고 유지하기 위해 성벽을 쌓았는데, 여기서 “도시의 공기는 자유를 만든다”는 말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도시는 스스로를 해방했지만 자신의 외



넘어서서 무한히 일반화될 수 있는 구조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훈육은 어떤 제도와도, 또한 어떤 기구와도 동일시될 수 없다. 그것은 권력의 한 형태이고 일체의 도구, 기술, 방식, 적용 범위, 목표를 갖고 있는 권력행사의 한 양식이다. 훈육은 권력의 ‘물리학’, 혹은 ‘해부학’ 이고, 하나의 기술이다...그러나 이것은 권력의 훈육 중심적 양식이 다른 모든 양식을 대체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그 양식이 다른 모든 양식들 속으로 스며들어, 때로는 그것들의 효력을 상실케 하면서도 그것들에 대해 매개구실을 하여 상호 연결시키거나 확장하며, 무엇보다 그것들의 가장 미세하고 가장 멀리 떨어진 요소들에게까지 권력의 효과를 도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양식은 권력의 여러 관계들의 미세한 분배를 확고히 해준다.(푸코 2003, 331-332)

근대성에 대한 푸코의 비판은 서구 외부의 나머지 세계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나머지 세계의 입장에서 볼 때 척도의 위치에서 명명하고-분류하고-나누는 담론 지도는 권력의 식민성(colonialidad del poder)이다.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의 저항 지점이 바로 여기이다.

### III. 라틴아메리카의 과거—식민주의(colonialism)에서 식민성(coloniality)으로

#### 1. 오리엔탈리즘에서 옥시덴탈리즘으로

유럽과 라틴아메리카에서 사회운동이 활성화되었던 1980년대에 중요한 이론적 흐름으로 등장한 포스트모더니즘 철학과 문화연구는, 둘 사이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서구화의 병리현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구화의 병리현상이란 앞에서 언급한 근대성의 배타적이고 이원론적 특성을 가리킨다. 근대성은 휴머니즘과 이성의 이름으로 삶의 영역으로부터 혼종성(hybridity), 다양성(multiplicity), 애매성(ambiguity), 우연성(contingency)을 배제하는 ‘타

---

부인 농촌의 해방을 바라지는 않았고, 영주나 귀족들을 대신해 농민들을 착취하기 시작했다(이진경 2006).

자-생산 기계' (alterity-generating machine)라는 것이다(Castro-Gómez 2002, 269). 타자-생산 기계는 차이를 억압하는 이원적 논리에 의해 타자를 설정한다. 이렇게 설정된 타자는 근대성 내부로 포괄되는 한에서만 타자로 존재한다. 두셀의 말을 빌린다면, “‘타자의 출현’이 아니라 ‘동일자의 투사’이다”(두셀 2011, 47).<sup>19)</sup> 따라서 타자가 존재하는 외부는 내부가 만들어낸 외부일 뿐이다. 근대성이 내세우는 동일성의 원리로 환원되지 않는 차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타자는 차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성의 논리로 흡수되어 위계적으로 배치된다.

세계를 표상하는 범주의 가치 평가에 대한 문제를 혁신적으로 제기한 사람은 사이드였다.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에서 오리엔탈리즘을 서로 연관된 세 가지 형식—동양에 관한 연구, ‘동양’과 ‘서양’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서 만들어진 존재론적이고 인식론적 구별에 근거한 하나의 사고방식, 동양을 다루기 위한 동업조합적(corporate) 제도—으로 규정했지만, 주된 관심사는 근대적 오리엔탈리즘과 식민주의의 연관성이었다. 즉 동양을 지배하고 재구성하며 억압하기 위한 서양의 방식인 오리엔탈리즘이 (미셸 푸코가 정의한) 담론으로서의 권위 있는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동양에 관해 쓰거나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양에 대한 편견과 왜곡을 바로 잡기 위한 사이드의 작업은 오리엔탈리즘과 ‘실제의’ 동양이 얼마나 부합하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오리엔탈리즘이란 것이 그 자체의 구조에서 하나의 일관성을 갖는가’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서양과 마찬가지로 동양도 사상, 이미지, 어휘의 역사와 전통을 갖춘 하나의 관념이고, 서양과 동양이라는 지리적 실체는 서로 의존하며 어느 정도는 서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사이드 2007, 16-18). 이 때문에 사이드는 표상의 범주에 대한 가치 평가와 불평등한 권력 관계 사이에서 애매함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비판을 의식했던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

19) 이런 맥락에서 두셀은 전체성 내의 ‘차이’(diferencia)와 실제 타자성과 관련된 ‘구별’(distinción)을 구분한다(두셀 2011, 53).

을 다시 생각한다」(1986)라는 글에서 오리엔탈리즘과 제국주의 간의 연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역사주의의 발전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국주의 사이의 연관 관계에 대해 근본적인 수준에서 인식론적 비판이 수행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영토와 주민을 축적의 대상으로 만들고, 경제를 통제하며, 역사를 합병하고 동질화시키는 제국주의를 비판하기 어려운 것은 서구 제국주의와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 같은 반명제를 흡수해버릴 만큼 역사주의(historicism)가 확장되고 발전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세계사를 서술하면서 오리엔탈리즘이나 민족지학 같은 문화연구가 제국주의와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에 거의 주목하지 않는다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세계사는, 마치 오리엔탈리즘이나 민족지학 같은 문화연구가 제국주의와 별개인 것처럼, 경제와 정치를 중심으로 서술된다. 여기서 흥미로운 결과가 도출된다. 첫째, 전지구적 규모의 축적 이론들은 3세대 이전의 식민 본국의 여행자나 오리엔탈리스트처럼 지정학적 맥락을 벗어나 있는 통찰력 있는 사람이나 역사주의적 관찰자에게 달려 있다. 둘째, 전지구적 규모의 축적 이론들은 비동시적(non-synchronous) 발전들, 역사들, 문화들, 사람들을 흡수해버리는 동질적이고 통합적인 세계사에 달려 있다. 셋째, 전지구적 규모의 축적 이론들은 이러한 지식 권력과 연계된 제도적·문화적·훈육적 도구에 대한 잠재적인 인식론적 비판을 봉쇄하고 억압한다.(223-224. Coronil 1996에서 재인용)

『오리엔탈리즘』은 오리엔탈리스트들에 의해 생산된 ‘권위 있는’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의’ 묘사로서의 표상이 아니라, 조작으로서의 표상이라는 결코 눈에 보이지 않는 흔적”(51)을 드러내는데 획기적인 업적을 세웠다. 그러나 사이드가 지적한 것처럼, 오리엔탈리즘이라는 표상 권력과 정치경제적 제국주의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오해하거나, 제국주의를 비판하기 어려운 것은 역사주의(historicism)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역사주의란 역사를 하나의 법칙으로 몰아넣는 보편적인 역사법칙이다. 따라서 문제는 서양의 오리엔탈리스트의 표상과 ‘있는 그대로의’ 동양의 관계가 아니라, 서구의 오리엔탈리스트의 표상과 서양 그 자체의 관계이다. 다시 말해, 오리엔탈리즘과 제국주의에 권위와 당위성을 부여하는 역사주의에 대한 검

중이 필요하다. 역사주의는 정당한가? 발전주의는 옳은 것인가? 진보와 합리성은 거부할 수 없는 진리인가? 즉 유럽중심주의적 근대성이 내세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이데올로기는 정당한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동양에 대한 서양의 표상이 갖는 결함을 비판하는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척도임을 자처하는 서양 그 자체의 표상에 대해 의문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오리엔탈리즘이 동양에 대한 서양의 자의적인 표상을 의미한다면, 서양에 대한 서양의 자의적인 표상은 옥시덴탈리즘이다. 제국의 지도를 그리던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옥시덴탈리즘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발전주의를 척도로 사회운동을 바라보는 것과 발전주의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사회운동을 바라보는 것은 크게 다르다.

옥시덴탈리즘은 단순히 오리엔탈리즘의 역전이 아니다. 즉 동양에서 서양으로 관점을 이동하는 것이 아니다. 옥시덴탈리즘은 동양이 척도가 되어 서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서양이 스스로 세운 척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오리엔탈리즘이 그랬던 것처럼, 옥시덴탈리즘은 옥시덴탈리즘과 ‘실제의’ 서양의 부합에 관한 것이 아니라, 동양과 서양 간의 비대칭적 권력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부연하자면, 옥시덴탈리즘은 오리엔탈리즘이 가능하게 된 조건이자 오리엔탈리즘의 이면(dark side)이다. 오리엔탈리즘이든 옥시덴탈리즘이든 간에 척도는 서양에 위치한다. 보는 주체(Self)로서의 서양과 보이는 대상(Other)으로서의 동양의 관계는 불평등한 권력 관계이다. 옥시덴탈리즘은 불평등한 권력 관계로 총체적 현실을 구성하려는 시도이다. 서양이라는 시공간적 맥락에서 ‘뿔뿔히 나와’ 합리성과 발전주의 역사관을 내세워 비서양적 ‘차이들’을 단선적 논리로 위계화하고 타자화한 것이 옥시덴탈리즘이다.<sup>20)</sup> 이 때문에 옥시덴탈리즘은 서구의 체계모니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옥시덴탈리즘은 서구의 권력을 표현하는 지식의 형태이면서 지식과 권력을 결합시킨다. 옥시덴탈리즘은 앞에서 언급한 제국의 지도제작 원리이자 전지구

20) 미놀로는 위계화된 차이를 ‘식민적 차이’ (colonial difference)로 부른다(2000).

적 확산의 논리이다.

오리엔탈리즘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표상하는 방식인 옥시덴탈리즘의 토대를 흔들어야 한다. 옥시덴탈리즘은 서구와 나머지 세계를 양극적이고 위계적 방식으로 배치할 뿐만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전지구적이고 지역적인 역사를 설명한다. 달리 말하자면, 옥시덴탈리즘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세계지도를 제작한다. 첫째, 세계의 구성요소를 칸막이된 단위로 분리한다. 둘째, 상관적인 세계의 역사를 요소로 분해한다. 셋째, 차이를 위계화한다. 넷째, 이러한 표상들을 자연 법칙으로 둔갑시킨다. 다섯째, 비대칭적 권력 관계의 재생산에 부지불식간에 개입한다.(Coronil 1996, 57)

## 2. 옥시덴탈리즘과 권력의 식민성

옥시덴탈리즘의 토대를 흔드는 것이 오리엔탈리즘에 도전하는 효율적인 방식이라면 어떻게 옥시덴탈리즘의 토대를 흔들 수 있을까? 우선, 위의 인용에서 언급한 세계지도 제작 방식의 처음 두 가지를 교정해야 한다. 즉 세계를 요소론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관계론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처음으로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주장한 것이 종속이론과 세계체제론이었다. 그러나 종속이론은 중심부와 주변부의 비대칭적 권력을 비판하면서 경제환원주의와 발전주의를 비판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또한 세계체제론은 아메리카 발견/정복과 더불어 시작된 자본주의 근대세계체제와 계몽주의 근대성을 별개의 사건으로 인식함으로써 근대성과 식민주의가 구성적(constitutive) 관계라는 점을 간과했다. 즉 계몽주의가 내세운 합리적 해방으로서의 근대성과 '신화로서의 근대성'이 은폐하고 있는 비이성적 폭력의 실천인 식민주의를 별개의 사안으로 취급한다. 이는 진보를 수반하는 문화적 변화인 근대성이 유럽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독립적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는 연속적으로" 발생했다는 유럽중심주의적 '터널사관'의 토대를 이룬다(제임스 블로트 2008, 34-35). 그리고 식민주의는 유럽에서 비유럽으로 혁신이 확산되면서 비유럽의 부가 유럽으로 흘러든 자연스러운 현상 내지는 부작용

으로 해석된다. 식민주의를 누락시킨 채 근대성을 이해하는 것은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이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신체에 가해지던 물리적 형벌이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규율을 통한 훈육권력으로 변화했듯이, 지식/권력의 중심에서 식민주의는 식민성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식민성은 식민주의와 다르다. 식민주의가 특정한 역사적 기간을 지칭한다면, 식민성은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권력 매트릭스이다. 즉 식민성은 근대성의 과거가 아니라 근대성의 ‘다른 얼굴’이다. 따라서 근대성과 구성적 관계를 이루는 식민주의를 누락시키는 것도 잘못이고, 식민주의 종식 이후에도 여전히 권력의 식민성이 행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것도 잘못이다. 푸코의 고고학적 방법론이 보여주었듯이, 식민성은 근대성을 구성하고 식민성 없이는 근대성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월러스틴이 명명했던 근대세계체제는 근대/식민 자본주의 세계체제로 개명되어야 한다. 아메리카가 세계사에 등장하면서 성립된 새로운 세계질서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한 가지는, 자본과 세계시장을 축으로 모든 종류의 노동, 생산, 착취—노동, 농노, 소규모 상품 생산, 상호성, 임금—가 형성되었다. 그러한 조건에서 노동의 형식은 역사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개별적 노동 형식과 상호연관적인 노동 모두 역사적으로도, 사회학적으로도 새로운 현상이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권력의 패턴을 통해 절합되었기 때문이다. 자본은 이러한 절합이 발생하는 중심축이었다. 이것이 자본주의 세계체제이다. 다른 한 가지는, 이러한 역사적 과정에서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아메리카의 등장과 더불어 정복자와 피정복자의 관계를 성문화하는 정신적 범주가 탄생했는데, 그것은 생물학적인 면에서 정복자와 피정복자 간의 구조적이고 위계적인 차이로 등장한 인종 개념이었다. 그리고 이런 지배 관계는 ‘자연의 법칙인 것처럼’ 여겨졌다. 인종 개념은 외적인 생김새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차이로 설명되었다. 그리고 외적이고 생김새의 차이가 열등과 우등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이와 연관된 문화적 차이도 열등과 우등으로 규정되었다.(Quijano 2000, 216)

끼하노는 아메리카의 발견/정복과 세계체제의 출발이 동일한 사건이며 (라틴)아메리카라는 역사적 개념을 발굴하는 것은 서구가 어떻게 탄생했으

며, 근대세계 질서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해하는 것임을 지적한다. 즉 자본주의 세계체제는 정치경제적 식민주의와 더불어 시작되었고 동시에 ‘지식의 식민성’(colonialidad del saber)과 ‘존재의 식민성’(colonialidad del ser)이 혼육권력으로 자리 잡은 체제라는 점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옥시덴탈리즘에는 두 가지 차원이 서로 얽혀 있는데 하나는 서구 문화의 지리-역사적 공간을 척도로 자리매김하는 역할이고, 다른 하나는 발화의 특권적 위치에서 나머지 세계를 기술하고 개념화하고 서열화하는 것이다. 특히 ‘인종’은 새로운 사회적 권력 구조에 포함된 주민을 분류하고, 생산자원을 통제하고, 노동을 분화하는 표준이 되었다. 자본을 축으로 인종과 노동을 결합시키는 새로운 지배/착취 기술은 전례가 없는 성공을 거두었고 이러한 식민적 권력 매트릭스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라는 특별한 경우에 ‘포스트’ 혹은 ‘신(neo)-’ 식민주의—혹은 식민적 지배가 이루어졌던 역사적 시기와 현재까지 그 효과가 지속되는 식민성—에 대한 논쟁은 필연적으로 옥시덴탈리즘과 근대성에 대한 비판과 얽혀 있다. 왜냐하면 옥시덴탈리즘과 근대성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제국의 합리성에 대한 깊이 있고 공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Mabel Moraña *et al.* 2008, 2).

옥시덴탈리즘은 근대성에서 정치경제적 식민주의를 누락시키고 지식과 존재의 식민성을 혼육권력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가능했다. ‘인종’과 ‘문화’ 개념은 통약불가능한(incommensurable) 위계적 차이를 통해 세계를 구성하는 자연적 법칙이 되었고, 이러한 통념은 학계와 생활세계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최근 30년 동안 라틴아메리카가 경험하고 있는 변화를 발전주의나 80년대의 민주주의 이행론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논쟁의 출발점이 근대/식민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있기 때문이다. 즉 발전주의나 민주주의 이행론의 출발점과 목적지가 훨씬 광범위한 근대/식민 자본주의 세계체제로 확장되었고, 발전주의나 민주주의 이행 이론의 토대가 되는 시간 개념이 선형적이라면 최근의 변화를 이해하는 시간 개념은 동시성(contemporaneidad)이며, 발전주의나 민주주의 이행론이 동질적 총체성을 토대로 한다면 최근의

변화를 포괄하는 총체성의 개념은 이질성이기 때문이다(Santos 2010, 87-93). 따라서 식민성을 비판한다는 것은 유럽중심주의적 근대성이 내세우는 전체주의적 총체성 개념으로부터 벗어나 ‘역사적-구조적 이질성’ (heterogeneidad histórico-estructural)을 복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항헤게모니 과정이 도달해야 할 지점들이 다양하면서도 갈등의 요소를 내포하는 차이들로 나타나는 것은 이 때문이다.

## IV. 라틴아메리카의 미래—탈식민성과 상호문화성

### 1. 탈식민성과 타자 가치의 복원

근대성이 하나의 기획이라면 탈식민성도 하나의 기획일까? 다시 말해, ‘근대성은 미완의 기획’이라는 하버마스의 주장을 ‘미완의 기획은 탈식민성’이라고 비판한 두셀의 말처럼 탈식민성도 하나의 기획인가? 근대성이 해방(emancipation)이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기획이라면, 탈식민성 역시 해방을 자처한 근대성의 폭력으로부터의 해방(liberation)이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기획이다.<sup>21)</sup> 그러나 근대성이 발전이나 진보라는 영원히 도달하지 못할 미래의 식민지화를 위한 기획이라면, 탈식민성은 현재적 시제의 기획이다. 이러한 문제설정은 라틴아메리카의 대항헤게모니 과정이 도달해야 할 목표 지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탈식민적 기획에는 잠재적으로는 상호보완적이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경쟁적이고 모순적인 두 개의 국면이 공존하는데, 하나는 포스트-신자유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포스트-자유주의이다. 포스트-신자유주의가 국가 권력 차원에서, 소위 좌파정권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면, 포스트-자유

21) 18세기에 등장한 emancipation 개념은 영국의 명예혁명(1668년), 미국의 독립혁명(1776년), 프랑스혁명(1789년)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새로운 사회계급인 부르주아지의 해방을 의미했다. 그리고 20세기에는 노동계급, 다중(multitude)의 해방의 개념으로 전유되었다. 반면에, liberation 개념은 유럽에 의해 식민화된 타자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계몽의 역설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훨씬 큰 틀을 제시한다.



주의는 사회운동이 도달하려는 목표 지점이다. 그리고 포스트-신자유주의가 경제의 지배적 형식인 자본을 넘어서서 사유하고 실천하려는 것이라면, 포스트-자유주의는 사회적·자연적 삶의 지배적 형식인 유럽중심주의적 근대성을 넘어서서 사유하고 실천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두 개의 국면이 상호보완적이면서 동시에 경쟁적이고 모순적이라는 사실이다. 즉 라틴아메리카의 탈식민적 기획은 국가, 사회운동, 그리고 양자가 결합되는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인 포스트-신자유주의, 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인 포스트-자유주의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서론에서 언급한 다양한 대항헤게모니 과정의 개념들이 될 것이다. 여기서 그 다음 질문이 주어진다. 대항헤게모니의 다양한 개념은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의 외부에 존재하는가?

‘외부’(exteriority)는 ‘대안에 대한 대안적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든스 효과’(Giddens effect)—파편화와 통합이 동시에 발생하는 불균등한 발전 과정을 거쳐 세계화는 새로운 형태로 세계가 상호의존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지구상에는 더 이상 타자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기든스의 주장—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김은중 2009a), 심지어 좌파 진영에 속하는 네그리와 하트조차도 제국 개념은 공간적 총체성을 효과적으로 망라하는, 즉 사실상 전체 문명 세계를 지배하는 체제라고 강조함으로써 외부를 사유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네그리·하트 2001). 또한 외부 개념을 사유하기 어려워진 것은 단지 공간 개념만이 아니라 사회주의 블록 붕괴 이후 ‘역사의 종말’이 선언됨으로써 외부 개념은 시간 개념에서도 사라졌다. 그리고 마침내 ‘대안은 없다’는 파시즘적 선언이 선포되었다. 그러나 외부는 공간적 개념도, 시간적 개념도 아니다. 외부는 타자성(the Otherness)이다. 타자성은 필연성과 법칙성, 그리고 보편성의 관념이 지워버린 ‘외부’를 의미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항헤게모니 과정으로서의 탈식민적 기획은 이론적이고 정치적이다. 즉 삶의 영역으로부터 배제된 이질성, 혼종성, 다양성, 애매성, 우연성을 삶의 영역으로 복원시키는 것이고, 사회로부터 사회적인

것을 회복하는 것이며, 권력의 식민성에 의해 은폐된 타자를 복권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해방으로서의 탈식민적 기획은 하나의 척도를 다른 하나의 척도로 대체하는 투쟁이 아니라 단일한 척도의 지배 자체를 해소하려는 투쟁이다. 이런 맥락에서 포스트-신자유주의와 포스트-자유주의의 ‘포스트’는 탈중심화 또는 ‘소극(消極)화된 다원성’(depolarized pluralities)을 의미한다(Escobar 2010; Santos 2008).<sup>22)</sup> 다시 플라니의 말을 빌리면, 경제로부터 뽑혀 나온 자본주의를 경제에 다시 물어들게 하는 것이고, 사회와 정치 형태로부터 뽑혀 나온 자유주의를 사회와 정치 형태에 다시 물어들게 하는 것이며, 사회조직의 매트릭스로부터 뽑혀 나온 국가 권력이 사회조직의 매트릭스로 다시 물어들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포스트-신자유주의와 포스트-자유주의는 자본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국가라는 형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척도의 자리에서 내려와 많은 다원성 중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탈식민적 해방 기획에서 외부는

근대적인 것과 전혀 접촉하지 않는 순수한 바깥(outside)으로 사유될 수 없다. 외부성의 개념은 존재론적 바깥을 수반하지 않는다. 외부성은 헤게모니 담론에 의해 위계적 차이로 구성된 바깥을 가리킨다. 이러한 외부성의 개념은 해방철학(liberation philosophy)의 골격을 이루는 윤리적이고 인식론적인 전망에서 도출된 타자—억압받는 사람, 여성, 인종차별을 받는 사람, 배제된 사람, 가난한 사람, 자연—개념으로부터 생각될 수 있다. 타자로서의 그/그녀가 위치한 외부성으로부터 항소함으로써 타자는 헤게모니적 총체성과 대결하는 윤리적 담론의 근원이 된다.(Escobar 2007, 186)<sup>23)</sup>

22) 예를 들어, 자본주의는 마치 자연의 법칙인 것처럼 전적으로 경제를 장악할 수 없다. 경제에는 여전히 호혜적 경제, 협동적 경제, 사회적 경제, 코뮌주의적 경제가 혼재하며, 심지어 지하경제도 포함된다.

23) 두셀의 해방철학의 핵심이 외부성과 타자성이다. 그가 레비나스에게서 배운 것은 타자의 윤리적 개입을 통한 총체성-외부성의 모순이었고, 마르크스 철학을 통해서 는 자본의 극단적 타자가 산노동(living labor)이라는 것을 배웠다. 또한 아펠(Apel), 하버마스, 설(Searl)의 의사소통이론도 그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두셀은 외부성은 부정성(negativity)이고 이를 통해 타자에 대한 주체의 지배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치철학으로 선회하였다.

지난 몇 십 년 동안 라틴아메리카에서 발생한 가장 핵심적인 변화 중의 하나로 원주민들이 사회적 행위자로 정치무대에 등장한 사건을 꼽는 것은 원주민이 타자 중의 타자이기 때문이다. 사파티스타 봉기와 에보 모랄레스의 대통령 당선은 말할 것도 없고 원주민 비율이 낮은 콜롬비아 같은 나라에서도 원주민들은 사회적 저항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콜롬비아, 브라질, 에콰도르에서는 아프리카계 후손들의 사회운동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원주민과 아프리카계 후손들은 공세적인 사회운동을 통해 문화 생산의 터인 영토를 방어하고, 천연자원의 통제와 '발전'에 대한 자율권과 자결권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며, '다국민성' (pluri-nacionalidad) 개념을 통해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려고 시도한다. 원주민과 흑인들이 요구하는 영토권, 자치와 자율권, 다국민성은 근대적 개념의 순수한 외부가 아니라 갈등을 내포한 개념들이다. 그들의 주장은 하나의 선택일 뿐 유일한 선택은 아니다. 다시 말해, 척도를 대체하는 다른 척도가 되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원천이 되는 삶, 그 삶의 터와 역사에 뿌리를 내린 하나(一)의 이치(理)가 되기를 주장한다.<sup>24)</sup>

일리는 자신을 역사와 터와 이름이 있는 '하나의 이치'로 자제하는 태도며, 또 바로 그 자제 속에서 타인의 소리와 그 소리의 힘을 고르게 인정하겠다는 의지를 선선히 내비친다. 이것은 지적인 패배주의이거나 혹은 지식의 진보를 정지시키는 데 기여하고, 현재의 지배 관계를 기묘한 방식으로 강화시키는 상대주의와는 변별된다. 일리란 다양한 이치의 망(網) 속에서 주변 자리를 밝힘으로써 '자신의 자리' (立場)를 분명히 하겠다는 뜻이며, 그 자리들의 위계를 따지기 이전에 자기 자리가 깊어지고 역사를 얻어가는 과정에 유의한다는 취지며, 마침내 인식을 넘어서는 성숙의 경지를 얻겠다는 결의인 것이다.(김영민 1999, 179-180)

오늘날 비판 이론이 부딪힌 난제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자본주의 (혹은 근대성)의 소멸을 생각할 수 있을까?' '자본주의가 소멸된다면 그 대안

24) 일리는 앞에서 인용한 끼하노의 '역사적-구조적 이질성' 과 다르지 않다.

은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이 풀기 어려운 난제가 된 것은 질문에 대한 대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문 자체에 있다. 질문 자체가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대답을 이미-항상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터와 역사로부터 얻어지는 일리는 절대적 보편주의를 주장해서도 안 되며, 위계적 상대주의 역시 경계해야 한다. 탈식민적 해방 기획은 일리로서의 타자성의 복권이다. 따라서 오지 않는 시간으로서의 미래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항상 존재하는 현재적 시제 속에 있다. 즉 대안으로서의 일리들은 이미-항상 존재하고 있었으나 주변화되고, 배제되고, 무시되었다.

## 2. 차이들의 생태학—경계사유와 상호문화성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탈식민적 기획은 단순한 이행이 아니라 투쟁이고 선택이다. 자신의 자리(立場)를 분명히 선택하는 것이며, 하위주체도 발언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투쟁이다. 따라서 탈식민적 기획은 적어도 두 가지 과정을 거친다. 우선, 절대의 참된(眞) 이치(理)를 자처했던 유럽중심주의적 근대성이 터와 역사를 갖는 하나의 일리일 뿐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타자로서 배제되고 은폐되었던 일리들, 마치 아무런(無) 이치(理)도 없었던 것처럼 취급되었던 일리들을 복권시키는 것이다. 첫 번째 과정이 진리를 일리로 하강시키는 것이라면, 두 번째 과정은 무리로 여겨졌던 일리들을 상승시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근대성의 수사학으로 치장된 옥시덴탈리즘을 해체하는 것이고, 동시에 식민성의 논리로 표상되었던 오리엔탈리즘을 수정하는 것이다. 반복하지만 단일한 척도의 지배를 해소시키는 것은 다른 척도를 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리들로 구성된 개방된 해석의 지평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런 두 가지 과정은 상호 연관되어 있고 동시적이다(김은중 2009a). 사실상 “일리가 인간됨의 조건과 한계가 삶의 제 모습에 순응해서 그려나가는 해석의 지평이기 때문에 진리도 무리도 현실이 아니다. 현실은 일리일 뿐이며, 진리와 무리는 그 일리들의 경계일 뿐”(김영민 1999, 176)이기 때문이다. 일리가 현실을 포착하는 하나의 이치라면 한계와 경계를 갖는 것

은 당연하다. 따라서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일리를 인정해야 하고, 일리 간의 충돌을 통해 현실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 미놀로는 이것을 경계사유(border thinking)로 표현한다.

경계사유는 다른 종류의 헤게모니, 즉 다원적 헤게모니를 지향한다. 다양성이 제시하는 보편적 기획은 보편주의가 아니라 보편주의에 대한 대안이다 (따라서 보편주의에 대한 대안은 특수주의가 아니라 다양성이다). 현팅턴이 언급하는 ‘서구와 나머지 세계’는 극복되어야 할 모델이다. 오늘날 ‘나머지 세계’는 다양한 경계사유가 출현하는 장소가 되었다. 또한 세계화(mundialización)가 한편으로는, 서구의 지구적 구상(기독교적, 자유주의적, 신자유주의적 발전, 근대화와 시장, 노동계급의 마르크스주의적-사회주의적 부상 등)을 수정하고 새롭게 적용함으로써,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지구적 구상들이 출현했던 유럽의 국지적 역사를 변화시킴으로써 새로운 (평등한) 국지적 역사들을 창조하는 장소가 되었다...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은 총체성이라는 개념을 버리고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네트워크의 형성은 내가 ‘경계사유’라고 부른 인식론적 원리를 필요로 한다. 경계사유는 식민적 차이를 재절속함으로써 이(異)보편성(diversality)을 보편적 기획으로 제시한다. 이보편적 보편주의란 ‘우리’ 모두가 평등하기 때문에 서로 다를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을 뜻한다.(Mignolo 2000, 310-311)<sup>25)</sup>

경계사유는 두 가치를 전제한다. 한 가지가 차이를 평등하게 인정하는 것이라면, 다른 한 가지는 차이들의 상호문화적 해석이다. 경계사유가 인식론

25) mundialización은 globalización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된 말이다. 후자가 근대적/식민적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정점인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가리킨다면, 전자는 ‘여러 개의 세계가 공존하는 하나의 세계’를 의미한다. 하나의 세계에 여러 개의 세계가 공존하는 방식은 위계적인 수직적 세계가 병렬적인 수평적 세계, 즉 일리 지평이 될 것이다. 이를 그리스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콘토포우로스(Kyriakos Kontopoulos)는 하이어라키(hierarchy)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헤테라키(heterarchy) 개념으로 설명한다. “헤테라키적 사고는 19세기 사회과학의 자유주의 패러다임과 결별한 새로운 언어와 함께 사회구조를 개념화하려는 시도이다. 사회구조의 낡은 언어는 단일 위계질서를 결정하는 하나의 닫힌 체제의 언어다. 반대로 헤테라키는 닫힌 위계질서를 뛰어넘어 복잡성의 언어, 개방 체제, 복합적이고 혼성적인 위계질서의 얽힘, 구조적 수준, 구조적인 논리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라몬 그로스포겔 2008, 152).

적 차원과 관계있다면, 상호문화성은 집단적-공동체적 차원과 연관된다. 식민적 권력의 구조 속에서 ‘나머지 세계’는, 한편으로는 서구의 것에 적응하는 일에, 다른 한편으로는 서구의 것에 저항하는 일에 몰두해야 했다. 이 때문에 지금의 라틴아메리카의 대항해계모니 과정은 정치와 교육에서부터 법률과 문화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권력의 식민적 매트릭스를 해체하는 작업과 억압당했던 일리들을 새롭게 구축하는 작업이다. 경계사유가 ‘나머지 세계’에서 출현하는 것은 경계사유가 단순히 인식론적 차원이 아니라 식민적 상처(colonial wound)가 제기하는 윤리적 행위이고 정치적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 V. 결론

라틴아메리카 대륙의 지정학적 구조가 현재의 상태로 모습을 갖춘 19세기 말부터 현재까지 라틴아메리카 철학과 사회과학에서 논쟁의 대상이었던 정체성에 대한 비판적 담론들은 타자성에 대한 근대중심주의적 논리와 공모 관계를 형성해왔고, 최선의 결과로 도출된 대안조차도 근대중심주의에 대한 적대적 틀 안에 머물러 있었다.<sup>26)</sup> 즉 라틴아메리카의 해방 담론들은 모든 외부, 외부로서의 타자성을 내부화하는 유럽중심주의적 근대성에 맞서기 위해 제3세계주의적인 선협적 주체와 ‘근본주의적 타자성’(foundational alterity)으로 구성된 정체성을 내세웠다. 그러나 유럽의 백인-프로테스탄트-도구이성적-개인주의적-가부장적 정체성과 대비되는 원주민-메스티소-가톨릭-전통적-반제국주의적-공동체적 정체성을 내세우는 타자화 전략은 대립적 구도의 설정일 뿐이다. 두셀의 표현을 빌리면 해방 기획이 아니라 수임(受任)

26) 여기서 상론할 수 없지만 19세기 말부터 현재까지 정체성을 둘러싸고 진행된 라틴아메리카주의는 크게 ‘라틴’아메리카의 정신성을 부각시킨 문화투쟁(Kulturkampf), 발전주의와 제3세계주의가 핵심이 된 지역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등장한 라틴아메리카주의, 종속이론과 해방신학을 주축으로 한 비판적 라틴아메리카주의, 마지막으로 이 글의 주제인 탈식민적 라틴아메리카주의로 구분된다(윌터 미놀로 2010, 289-291).

기획일 뿐이다. 즉 “수임 기획이란 원주민의 과거, 아프리카계 라틴아메리카인의 과거, 식민지 과거를 부정한 자유주의자나 대토지를 소유한 보수주의자나 크리오요의 해방 기획에 불과하다”(두셀 2011, 227). 따라서 수임 기획은 동일한 근대성의 틀 안에 형성된 적대 전선이었다. 따라서 제3세계주의는 유럽중심주의에 대한 대안이 아니다.

탈식민적 해방 기획은 모든 정체성/동일성은 부분적이고, 역사적이며, 이질적이라는 사실로부터 출발한다. 탈식민적 해방 기획은 터와 역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익명의 진리나 모든 관점을 독점하는 전지시점의 인식이 저지르는 배타적 표상 정치를 비판하는 인식론적 탈식민화 기획이다. 이 때문에 탈식민적 해방 기획은 ‘라틴아메리카’라는 하나의 표상 안에 외부로서의 타자성을 다 포괄할 수 없으며, 타자로서의 외부가 근대중심주의적 총체성의 순수한 바깥이 아니라는 인식을 토대로 한다. 이러한 인식은 볼리비아의 상황에 대한 알바로 가르시아 리네라의 언급에 잘 나타나 있고 이러한 언급은 라틴아메리카 전체에 적용될 수 있다. “볼리비아에는 원주민과 비원주민이 공존하고, 자유주의자와 코뮌주의자가 섞여 있다. 사회계급의 관점에서 볼 때 볼리비아는 지역적으로 매우 다양하고 혼종적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다원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제도를 가져야 한다”(2007). 경계사유라는 개념은 라틴아메리카가 더 이상 절대 타자도 아니고, 절대적 고독 속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경계사유는 라틴아메리카의, 라틴아메리카에 의한, 라틴아메리카를 위한 사유가 아니라 근대적/식민적 팽창주의가 가져온 필연적 결과이다.

지금 다양한 양상으로 출현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대항체계모니 과정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미 항상 존재했던 억압당하고 은폐되었던 타자들의 등장이라는 점에서 현재적 시제의 투쟁이고, 장기지속의 근대적/식민적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권력의 식민성에 대한 투쟁이라는 점에서 과거에 대한 기억이며, 가능한 또 다른 세계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미래 시제를 갖는 투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탈식민적 해방 기획이 ‘타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라

‘타자에 의한’ 사유의 출발점이며, 포스트-신자유주의와 포스트-자유주의의 교차점으로서 일리들이 출현하는 지점이라는 사실이다.

## 참고문헌

- 김영민(1999), 『진리 · 일리 · 무리: 인식에서 성숙으로』, 철학과현실사.
- 김은중(2011), 「유럽중심주의 비판과 주변의 재인식: 라틴아메리카로부터 라틴아메리카를 사유하기」, 한국학논집, 42: 67-94.
- 김은중(2009a), 「유럽중심적 근대성을 넘어서: 권력의 식민성과 경계사유」, 이베로아메리카, 11권 1호, pp. 1-38.
- 김은중(2009b), 「트랜스모더니티 혹은 반헤게모니 생태학: 비판이론의 탈식민적 전환을 중심으로」, 이베로아메리카연구, 20(1): 149-181.
- 백승욱(2006), 『자본주의 역사강의: 세계체제분석으로 본 자본주의의 기원과 미래』, 그린비.
- 윤평중(1990), 『푸코와 하버마스를 넘어서: 합리성과 사회비판』, 교보문고.
- 이성형(2011), 「라틴아메리카의 중도좌파 붐: 원인, 성격, 그리고 전망」, 역사비평, 통권 96호, 가을, pp. 280-316.
- 이진경(2009), 『외부, 사유의 정치학』, 그린비.
- 이진경 et.al.(2008), 『전지구적 자본주의와 한국사회: 다시 사회구성체론으로?』, 그린비.
- 이진경(2006), 『미-래의 맑스주의』, 그린비.
- 나오미 클라인(2008), 『쇼크 독트린: 자본주의 재앙의 도래』, 김소희 옮김, 살림.
- 네스토르 가르시아 칸클리니(2011), 『혼종문화: 근대성 넘나들기 전략』, 이성훈 옮김, 그린비.
- 라몬 그로스포겔(2008), 「식민적 차이, 지식의 지정학과 전세계적 식민지화」, 홍성민 엮음, 『지식과 국제정치: 학문 속에 스며든 정치 권력』, 한울, pp. 133-163.
- 루이스 레이가다스(2008), 「라틴아메리카: 지속되는 불평등과 최근의 변화」, 에릭 허쉬버그/프레드 로젠 외, 『신자유주의 이후의 라틴아메리카』, 김



- 종돈/강혜정 옮김, 모티브북.
- 미셸 푸코(2003), 『감시와 처벌: 감옥의 역사』, 오생근 옮김, 나남출판.
- 아라셀리 다미안/홀리오 볼트비닉(2008), 「식탁: 라틴아메리카 빈곤 계층의 의미」, 에릭 허쉬버그/프레드 로젠 외, 『신자유주의 이후의 라틴아메리카』, 김종돈/강혜정 옮김, 모티브북.
- 안토니 기든스(1991), 『포스트모더니티』, 이윤희/이현희 옮김, 민영사.
-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2001), 『제국』, 윤수중 옮김, 이학사.
- 에드워드 사이드(2007), 『오리엔탈리즘』, 박홍규 옮김, 교보문고.
- 엔리케 두셀(2011), 『1492년, 타자의 은폐: ‘근대성 신화’의 기원을 찾아서』, 박병규 옮김, 그린비.
- 윌터 미놀로(2010), 『라틴아메리카, 만들어진 대륙: 식민적 상처와 탈식민적 전환』, 김은중 옮김, 그린비.
- 제임스 M. 블로트(2008), 『역사학의 함정: 유럽중심주의를 비판한다』, 박광식 옮김, 푸른숲.
- 칼 폴라니(2009), 『거대한 전환: 우리 시대의 정치·경제적 기원』, 홍기빈 옮김, 갈.
- Arditi, Benjamin(2008), “Arguments about the Left Turns in Latin America: A Post-Liberal Politics?,” *Latin America Research Review*, Vol. 43, No. 3, pp. 59-81.
- Castro-Gómez, Santiago(2002), “The Social Sciences, Epistemic Violence, and the Problem of the Invention of the Other,” *Nepantla: View from South*, Vol. 3, No. 2, pp. 269-285.
- Coronil, Fernando(1994), “Listening to the Subaltern: The Poetics of Neocolonial States,” *Poetics Today*, Vol. 15, No. 4, pp. 643-658.
- Coronil, Fernando(1996), “Beyond Occidentalism: Towards Nonimperial Geohistorical Categories,” *Cultural Anthropology*, Vol. 11, No. 1, pp. 51-87.
- Escobar, Arturo(2010), “Latin America at a Crossroads,” *Cultural Studies*, Vol. 24, No. 1, pp. 1~65.
- Escobar, Arturo(2007), “Worlds and Knowledges Otherwise,” *Cultural Studies*, Vol. 21, No. 2, pp. 179-210.
- Escobar, Arturo y Alvarez, Sonia(eds.)(1992), *The Making of Social Movements in*

- Latin America: Identity, Strategy and Democracy*, Oxford: Westview Press.
- Laclau, Ernesto and Mouffe, Chantal(1985), *Hegemony and Socialist Strategy: Towards a Radical Democratic Politics*, London: Verso.
- Linera, Alvaro García(2007), “An Interview with Alvaro Garccia Linera, Vice President of Bolivia. Bolivia—coming to terms with diversity,” Interview by Laura Carlsen, America’s Program. <http://www.americaspolicy.org> 검색일 20011/08/18
- Mabel Moraña, Enrique Dussel, and Carlos A. Jáuregui(eds.), *Coloniality at large: Latin America and the Postcolonial Debate*, Durham &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 Mainwaring, Scott and Viola, Eduardo(1984), “New Social Movements, Political Culture and Democracy: Brazil and Argentina in the 1980’s,” *Telos*, Vol. 61, pp. 17-54.
- Mignolo, Walter(2000), *Local Hitories/Global Designs: Coloniality, Subaltern Knowledges, and Border Thinking*,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 Mignolo, Walter(1992), “Putting the Americas on the map (geography and the colonization of space),” *Colonial Latin American Review*, Vol. 1, No. 1-2, pp. 25-63.
- Ocampo, J. A.(2004), *Reconstruir el futuro: Globalización, desarrollo y democracia en América Latina*, Bogotá: Editorial Norma.
- Panizza, Francisco(2005), “Unarmed Utopia Revisited: The Resurgence of Left-of-Centre Politics in Latin America,” *Political Studies*, Vol. 53, No. 4, pp. 716-737.
- Pletsch, Carl E.(1981), “The Three Worlds, or the Division of Social Scientific Labor, Circa 1950-1975,”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Vol. 23, No. 4, pp. 565-590.
- Quijano, Aníbal(2007), “Colonialidad del poder y clasificación social,” Castro-Gómez, Santiago y Grosfoguel, Ramón(eds.), *El giro decolonial*, Bogotá: Siglo del Hombre Editores, pp. 93-126.
- Quijano, Aníbal(2000), “Colonialidad del poder, eurocentrismo y América Latina,” in Edgardo Lander(comp.), *La colonialidad del saber: eurocentrismo y ciencias sociales, Perspectivas Latinoamericanas*,

- Buenos Aires: CLACSO, <http://bibliotecavirtual.clacso.org.ar/libros/lander/quijano.rtf> 검색일 2007/05/25
- Said, Edward(1986), "Orientalism Reconsidered," Francis Barker *et al.*(eds.), *Literature, Politics, and Theory*, London: Methuen.
- Santos, Boaventura de Sousa(2010), *Refundación del Estado en América Latina: Perspectivas desde una epistemología del Sur*, Quito: Ediciones Abya-Yala.
- Santos, Boaventura de Sousa(2008), "The World Social Forum and the Global Left," *Politics & Society*, Vol. 36, No. 2, pp. 247-270.
- Santos, Boaventura de Sousa(2006), *The Rise of the Global Left: The World Social Forum and Beyond*, New York: Zed Books Ltd.
- Slater, David(1991), "New Social Movements and Old Political Questions: Rethinking State-Society Relations in Latin American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21, No. 1, pp. 32-65.
- Touraine, Alain(1987), *Actores sociales y sistemas políticos en América Latina*, Santiago, PREALC/OIT.
- Touraine, Alain y Khosrokhavar, Farhad(2000), *A la búsqueda del sí mismo: Diálogos sobre el sujeto*, Barcelona: Paidós.
- Wallerstein, Immanuel(2011), "The Social-Democratic Illusion," <http://www.agenceglobal.com/article.asp?id=2639> 검색일 2011/09/16

## 김은중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ocpaz@snu.ac.kr

논문투고일: 2011년 9월 10일  
심사완료일: 2011년 10월 11일  
게재확정일: 2011년 10월 17일